

심리적 거리와 처벌 판단: 시간적 거리를 중심으로*

이 가 영 인 다 희 김 범 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본 연구는 시간적 거리에 따른 심리적 거리가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대학생을 대상(127명)으로 시간적 거리가 다른 두(가까운 과거/먼 과거) 범죄 시나리오를 제공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연구 1). 그 결과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멀리 있는 사건에 대해 더 강한 양형판단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현시점으로부터 먼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들에 대해 사람들은 더 무거운 양형을 부과하였다. 추가적으로 시간적 거리와 양형인자에 따라 양형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히고자 하였다(연구 2). 즉, 시간적 거리에 따라 나누어진 범죄 시나리오에 양형판단에 있어 감경요인 혹은 가중요인이 될 수 있는 원인에 대한 기술을 추가적으로 설정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리와 양형인자(감경요인, 가중요인)와 시간적 거리(가까운 과거 조건, 먼 과거 조건)의 주효과가 나타났고, 양형인자와 시간적 거리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즉 보복을 목적으로 범죄를 저질러 가중처벌이 되는 조건에서 시간적 거리가 멀다고 느낀 집단이 시간적 거리가 가깝다고 느낀 집단보다 더 무거운 양형을 부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의의와 제한점이 논의되었다.

주제어 : 해석수준이론, 심리적 거리, 시간적 거리, 양형인자, 처벌

* 본 연구는 인다희의 석사학위 논문 자료를 제 1저자가 새로운 논리로 재기술하였다.

† 교신저자: 김범준,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16227)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교산로 154-42

Tel: 031-249-9193, E-mail: bjkim@kyonggi.ac.kr

통상적으로 잘못된 행동에 대해 내리는 처벌은 법률에 의해 규정된 재판을 통해 이루어진다. 형법에 규정된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은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그리고 책임을 근거로 이루어진다. 이 같은 처벌의 정당성이나 공평성을 위해 법률은 세부적 규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법관 판단의 임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 법관들은 비교적 이를 잘 준수하고 있어 재판은 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박성훈, 최이문, 2016; 하민경, 2016).

그런데 잘못된 행동이라고 부르는 비도덕적 행동 중 법률적 규제를 받는 범죄행동에 대한 처벌에는 객관적인 법률적 요소 이외에도 심리적 요인들이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Hagan, 1974). 예를 들어, 가해자와 피해자나 배심원과 같은 판단자의 성별, 인종, 사회계층, 외모, 처벌철학, 태도나 신념 등(김범준, 2007; 김범준, 최승혁, 2008; 김혜정, 2017; 박미량, 이민식, 2011; 박지선, 김정희, 2011; 정지원, 이인숙, 김혜숙, 2015; 황인정, 2007; Carlsmith, 2006; Johnson, 1957; Leventhal & Krate, 1977; Partington, 1965; Selin, 1928; Wolfgang & Riedel, 1973)과 같은 심리적 요인들이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최근 사회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사건에 대한 해석 수준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거리에 따라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 행동인 범죄 행동에 대한 처벌 판단이 달라질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Agerström & Björklund, 2009; Eyal, Liberman, & Trope, 2008; Gamiel, Kreiner, & McElroy, 2017).

해석수준이론과 심리적 거리

사람들은 일상의 사건들을 주관적으로 해석한다. 동일한 사건도 개인마다 상이하게 표상되며 표상된 양상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경험된다. 다양한 심리적 요인들이 주관적 해석 과정에 관여하게 되는데, 특히 해당 사건과의 심리적 거리에 따라 표상 수준 차이와 그에 따른 주관적 해석에서의 차이가 나타난다. Trope와

Liberman(2003, 2010)은 정신적 표상체계상에서 모든 대상은 행동의 주체인 자기로부터의 주관적 거리를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들은 이 같은 거리를 심리적 거리(psychological distance)라고 하였다. 이들은 우리가 어떠한 현상이나 대상에 대해 심리적 거리를 가지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들이 제시한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동일한 것을 보더라도 다르게 해석하고 판단한다(Trope & Liberman, 2003, 2010). 예를 들어 공을 가지고 노는 모습을 단순히 '공을 가지고 논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즐거움을 만끽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 해석수준이론에서는 사람들이 낮은 수준 혹은 높은 수준으로 사물이나 현상을 해석한다고 본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물에 대해 구체적이고 표면적, 즉각적인 속성, 즉 낮은 수준으로 해석하고 주목하는 반면, 심리적으로 멀리 있는 것들에 대해서 추상적이고, 본질적, 안정적 속성, 즉 높은 수준으로 해석하고 주목한다. 위의 예에서 '공을 가지고 노는 것'은 낮은 해석수준이며, '즐거움을 만끽한다'는 것은 높은 수준의 해석이 된다(Liberman, Trope, & Stephan, 2010; Trope & Liberman, 2010).

심리적 거리는 크게 시간적 거리,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발생확률로 구분될 수 있다(Liberman & Trope, 2014; Trope & Liberman, 2010). 먼저 시간적 거리(temporal distance)란 판단의 대상이 되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얼마나 가까운 혹은 먼 미래(혹은 과거)의 사건인가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심리적 거리인 공간적 거리(spatial distance)는 물리적으로 사물이나 대상이 자기와 가까이 있다거나 멀리 떨어져 있다는 물리적 공간에 대한 지각을 말한다. 세 번째 사회적 거리(social distance)란 사회적 관계성에 기초해 개인이 느끼는 심리적 거리감이다. 사람들은 자신과 공통점이 많다거나 사회적으로 가깝다고 느끼는 상대에 대해서 심리적으로 가깝다고 느낀다. 마지막으로, 발생확률적 거리(hypothetical distance)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의 정도에 따라

느끼는 심리적 거리를 말한다. 사람들은 발생확률이 높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리적으로 가깝게 느끼고, 발생확률이 낮은 사건에 대해서는 거리적으로 멀게 느낀다.

같은 사건과 정보라고 하더라도 심리적 거리에 따라 표상이 달라진다.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심리적 거리가 멀면 높은 해석 수준과 연관되며,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낮은 해석 수준과 연관된다(Trope & Liberman, 2003). 예를 들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현재의 경우, 해석은 더 구체적이고 맥락에 의존한다. 그리고 사건의 부수적 특징에 의존하며, 부차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 이에 반해 시간적 거리가 먼 미래의 경우, 해석 수준이 높게 되어 간단하고 맥락에 의존하지 않는 표상이 형성된다. 즉, 해석수준이 일반적이고 상위 개념적이며 사건의 본질적 특징으로 이루어진다. 상위 수준에 비해 하위 수준은 표상이 풍부하고 세세하기는 하지만, 덜 구조화되어 있고 덜 효율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 중 시간적 거리의 효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전 연구에 따르면, 사건의 발생 시점이 현재로부터 얼마나 떨어졌느냐에 따라 사람들이 해당 사건을 구성하는 양상에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해주고 있다. 예를 들어, Liberman, Sagristano 및 Trope(2002)는 참가자들에게 운이 좋은 날과 나쁜 날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을 적도록 하였다. 이때 시간적 거리 조작은 가까운 미래와 먼 미래로 하였다. 그 결과,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자신들에게 발생할 사건들에 대한 평가의 변산성이 낮았고(less variable), 평가가 긍정/부정차원에서 더 극단적이었다. 즉,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사건에 대한 응답은 더 응집적이고 극단적이었다. 또한 Trope와 Liberman(2000)의 연구에 따르면, 시간적 거리가 증가할수록 사물의 근본적 요소를 중요시하였다. 예를 들어 라디오를 기술한다면,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주로 라디오의 질과 관련된 근본적 요소들을 더 많이 고려했다. 이에 반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우면 라디오의 부수적 기능,

예를 들어 라디오에 부착된 시계의 성능과 같은 것에 집중하였다.

앞선 연구들은 현재와 미래의 시간차이에 따른 시간적 거리의 효과를 조사하였는데, 시간적 거리 효과는 현재와 과거의 시간적 차이에서도 관찰된다(Liberman & Trope, 2014). 가까운 과거와 먼 과거를 비교하는 경우, 해석 수준에서 보면 가까운 과거가 구체적이라면 먼 과거는 추상적 해석과 관련이 있다. Semin과 Smith(1999)는 참가자들에게 각각 먼 과거(적어도 1년 전)와 가까운 과거(2주 전)의 중요한 사건에 대해 회상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응답의 추상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까운 과거의 사건보다 먼 과거의 사건에 대해 묘사할 때 더 추상적인 언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연구에서 그 반대의 방향성 또한 보여주었는데, 참가자들에게 추상성을 다르게 한 회상 단서를 제시하고 그 사건이 얼마나 먼 과거에 발생했는지에 대해 질문하였다. 그 결과 추상적인 회상 단서를 제시받은 참가자들이 구체적인 회상 단서를 제시받은 참가자들보다 8개월 더 오래된 사건으로 지각하였다. 즉 과거의 사건에 대해서도 기존의 미래를 대상으로 해왔던 연구처럼 심리적 거리가 멀 때는 높은 해석 수준을, 심리적 거리가 가까울 때는 낮은 해석 수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전의 해석수준이론 연구들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심리적 거리가 개인의 행동과 의사 결정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영역에서 확인하였다. 소비자의 행동(양윤, 김민혜, 2012; 정의준, 김혜영, 유승호, 2012; 조연진, 박경도, 서재범, 이호택, 2017 Dhar & Kim, 2007; Trope, Liberman, & Wakslak, 2007), 의사결정(이진용, 2010), 용서(Rizvi & Bobocel, 2016), 의지(Stephan, Shidlovski, & Heller, 2017), 태도(Carrera, Caballero, Fernández, & Muñoz, 2017), 그리고 인과추론(Hansen & Trope, 2013)에서 시간적 거리에 따라 사건 해석의 차이와 그에 따른 심리적/행동적 효과가 반복적으로 관찰되었다.

심리적 거리와 도덕성

심리적 거리에 따른 주관적 해석의 차이는 비윤리적 행동인 도덕성 및 위법성 판단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 높은 수준의 해석들에서 사건을 표상하기 때문에 우리는 맥락이 배제된 본질적 차원에서 사건을 고려한다. 이에 반해 심리적 거리가 가까우면 낮은 수준의 해석들에서 사건을 해석하기 때문에 맥락에 의존하고 상황에 대한 고려를 더 하게 되며 궁극적 목적보다는 부수적인 면에 초점을 맞춘다. 이 같은 특성 때문에 도덕적 판단은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보다 시간적 거리가 멀 때 더 엄격해진다(Gamliel et al., 2017). 시간적 거리의 증가는 사회적 가치와 같은 근본적 요소에 직접적으로 초점을 두게 하는 추상적인 정신적 표상을 활성화하기 때문이다. 또한 시간적으로 먼 행동에 대해 구체적이고 상황적 원인보다는 추상적이고 기질적 요인에 귀인하는 경향이 증가한다(Nussbaum, Trope, & Liberman, 2003).

특정 행동의 도덕성을 판단하려고 할 때, 사람들은 그 행동의 본질적 속성에 따라 도덕적 여부를 판단할 뿐 아니라, 주변 상황적 맥락 요소에도 주목하게 된다. 그런데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즉, 심리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 세세한 부분까지 고려하게 되고 맥락적 정보 즉 상황적 정보의 의존이 높아지게 된다. 이에 반해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즉, 심리적 거리가 먼 경우), 사건의 본질적 속성을 더 고려하고 맥락의 영향을 덜 고려하게 된다. 따라서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행동보다 시간적 거리가 먼 시점에서 발생한 사건이나 행동을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게 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Eyal 등(2008)은 이 같은 가설을 실험적으로 입증하였다. 이들이 수행한 연구 중 실험 1에서는 행위에 대한 도덕적 판단을 함에 있어 시간

적 거리에 따라 어떤 도덕적 원칙을 가지고 해석하는가를 살펴보았다. 그들은 참가자에게 가까운 미래 혹은 먼 미래에 발생할 도덕적 상황에 대해 상상하게 한 후, 이를 대체하는 두 가지 설명(높은/낮은 수준의 설명) 중 하나를 선택하게 하였다. 그 결과 먼 미래의 비도덕적 행동을 가까운 미래의 비도덕적 행동보다 더 높은 해석 수준으로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실험 2에서 보다 직접적으로 도덕적 판단 자체를 살펴보았다. 실험 2에서는 참가자들에게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이 사건이 먼 미래 혹은 가까운 미래에 발생할 것이라고 상상하도록 하였다. 이후 참가자들에게 그 행동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판단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참가자들은 먼 미래의 비도덕적 행동을 가까운 미래의 비도덕적 행동보다 더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평가하였다. 이에 더해 Gamliel 등(2017)의 연구에 따르면 높은 해석 수준이 사람들로 하여금 비윤리적 행위들에 대해 더욱 가혹한 판단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연구들에서도 일관성 있게 지지되고 있다(정혜승, 정은경, 손영우, 2011; Agerström & Björklind, 2009; Coujeharenco, Patient, & Bashshur, 2011; Lammers, 2012; Trope & Liberman, 2010).

이러한 이전 연구 결과들에 비춰 볼 때, 도덕적 측면에서 매우 극단적인 행동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에 있어서도 시간적 거리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즉 시간적으로 가까운 시점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와 비교하여 시간적으로 먼 시점에서 발생한 범죄 행위를 보다 추상적 수준으로 해석하여 해당 행위에 대해 더 강력하게 처벌할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

심리적 거리와 양형인자

범죄 행위에 따른 결과가 동일한 경우에도 범죄의 동기나 원인에 따라 해당 범죄 행위에 대한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 즉, 범죄 처

벌에서 해당 행위의 원인 및 동기는 감경요인 혹은 가중요인으로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런데 양형 판단 시 이러한 양형 인자의 고려 정도가 시간적 거리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사람들은 시간적으로 먼 미래(혹은 과거)에 발생한 사건에 대해서는 선택을 통한 결과의 가치를 강조하는 바람직함(desirability)과 행동의 목적이나 동기(why) 측면을 고려한다. 이에 반해 보다 가까운 미래(과거)의 사건의 경우, 결과를 쉽게 얻을 수 있는 실행가능성(feasibility)과 행동의 수단(how)과 관계된 정보에 초점을 맞추게 된다(Eyal, Liberman, & Trope, 2014; Liberman & Trope, 2014).

시간적 거리에 따라 행동의 원인에 더 초점을 두는가 아니면 그 결과에 더 초점을 두는가를 Rim 등(2013)은 실험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은 높은 해석 수준은 중심적이고 중요한 특징을 포함하고, 낮은 해석수준은 부차적 특징을 포함하기 때문에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에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원인에 초점을 두는 반면에,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결과에 초점을 둘 것이라는 가설을 검증하였다. Rim 등(2013)은 실험 참가자들에게 조건에 따라 “1년 뒤의 나” 또는 “내일의 나”를 상상하게 한 후, 제시된 사건이 1년 뒤(혹은 내일) 일어난다고 생각하고 원인이나 결과를 생각하여 쓰도록 하였다. 그 결과 먼 미래에 일어난다고 생각한 참가자들이 원인을 더 잘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고, 결과는 시간적 거리에 상관없이 비슷하게 떠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실험 3). 그리고 연구자들은 역으로 원인 또는 결과를 생각하는 것이 사건의 시간적 거리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실험 참가자들은 8개의 사건의 원인 또는 결과를 생각해내고, 그 사건이 얼마나 먼 미래에 일어날 지에 대해 응답하였다. 그 결과 원인을 생각했던 참가자들이 평가한 사건의 시간적 거리 평균이 결과를 생각한 참가자들이 평가한 시간적 거리의 평균보다 더 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에 따라 행동의 원인에 집중하는 정도의 차이는 시간적 거리에 따른 대응 추론 편향(correspondence bias) 효과 연구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대응 추론 편향은 추상적이고, 탈맥락화된 행동의 높은 해석 수준과 연관된다(Semin & Fiedler, 1988; Semin & Smith, 1999). Nussbaum과 동료들은(2003) 이를 실험적으로 증명하였다. 연구자들은 참가자들에게 한 학생이 작성한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에 대해 찬성하는 에세이를 읽게 하였다. 이때 한 조건에서는 참가자에게 글을 작성한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쓰게 했다고 말하고, 다른 조건 참가자들에게는 에세이를 작성한 학생에게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를 찬성하는 에세이를 쓰게 했다고 알려주었다. 그 후 참가자들은 에세이 작성자가 내일(가까운 미래) 또는 1년 뒤(먼 미래)에 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에 대한 찬성을 직접적인 행동으로 표현할 가능성을 추정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먼 미래에 직접적인 찬성 행동을 표현할 가능성은 상황적 제약(이스라엘군의 레바논 철수 찬성 에세이를 쓰게 했다고 한 것)의 영향을 덜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가까운 미래에 대해 평가한 가능성은 상황적 제약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시간적 거리가 멀수록 상황적 요인보다는 개인의 기질적 요인에 더 중점을 두고 판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이전의 많은 연구들은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사람들이 원인에 대한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범죄사건에서 그 원인이 감경요인(혹은 가중요인)인 경우는 어떻게 될까?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판단자는 범죄에 이르게 된 행위자의 사연(범죄의 원인)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이는 결국 처벌의 수준이 좀 더 약한(혹은 좀 더 강한) 양형판단으로 이어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범죄사건에서 그 원인이 가중요인인 경우에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판단자는 행위자의

범죄의 원인에 더 집중하게 될 것이고, 더 강한 처벌에 해당하는 양형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반면에 감경요인인 원인이 제시되는 경우에는 심리적 거리가 멀어질수록 더 약한 처벌에 해당하는 양형판단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 개요

본 연구에서는 범죄 사건에 대해 처벌 판단을 내릴 때, 심리적 거리 중 시간적 거리에 따라 사람들의 처벌에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연구 1). 이는 기존 연구결과들에 대한 반복검증의 성격을 갖는다. 또한,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것에 비해 멀면 높은 해석 수준을 갖게 되어 사건의 원인을 더 고려하여 처벌판단에 차이가 있는가를 보기 위해 시간적 거리가 다른 범죄사건과 범죄사건의 원인(양형인자: 감경/가중요인)을 제공하였을 때, 처벌에 해당하는 양형판단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밝히고자 한다(연구 2).

연구 1

연구 1에서는 시간적 거리에 따라 처벌의 정도가 달라지는가를 살펴보았다. 즉, 가까운 사건에 비해 먼 사건이 해석수준에 있어서 더 추상적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상위 수준의 도덕적 원리가 적용되어 사건에 대해 더 엄격한 도덕적 잣대에 의해 판단을 하게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가까운 사건에 비해 먼 사건에 대해 더 강한 처벌 즉 더 많은 양형을 부과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실험참가자는 수도권 소재 K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 과목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중 참여 의사를 밝힌 55명이었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실험 참여 점수가 부여되었다. 전체 참가자 중 처벌판단에 응답하지 않은 3명을 제외하였고, 총 52명(남학생 28명, 여학생 24명)의 자료가 분석되었다. 각 조건 중 가까운 과거 조건에 26명(남학생 14명, 여학생 12명), 먼 과거 조건에 26명(남학생 14명, 여학생 12명)이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실험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75세($SD = 2.20$ 세)이었다.

시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는 사건이 발생한 시기를 통해 규정하였다. 가까운 과거 시간 조건은 실험이 진행된 당해 연도로 하였고, 먼 과거 조건의 경우에는 10년 전의 시기로 설정하였다(예를 들어 2018년에 실험이 진행되는 경우, 가까운 과거 조건은 2018년으로 하고 먼 과거 조건은 2008년으로 하였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 조작은 사전 설문 결과를 바탕으로 하였다. 수도권 소재 4년제 대학교의 학생 80명을 대상(남학생 34명, 여학생 46명)으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멀다고 느껴지는지 자유롭게 기술하도록 하였다. 그 결과 '10년 전'이 멀게 느껴진다고 보고한 참가자들이 30명(36.59%)으로 가장 많았고, '30년 전'이라고 응답한 참가자는 10명(12.2%), '500년 전' 6명(7.32%), '6년 전' 4명(4.88%), 기타 응답 32명(39%) 순으로 보고하였다. 이 같은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먼 과거를 10년으로 설정하였다.

처벌 판단

처벌의 정도는 가해자에 대한 형량으로 평정하였다. 실험 참여자 본인이 생각하는 시나리오 속 피의자에게 적절한 양형을 '00년 00월'의 형

식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이때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유형인 침입절도의 기본 양형구간(1년-2년 6월)을 제시하였고, 경우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할 수 있다고 양형의 범위에 대해 명시하였다.

범죄사건 시나리오

참가자들로 하여금 특정사건에 대한 양형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4년 발생한 절도사건 기사를 바탕으로 범죄 시나리오를 재구성하였다. 조건에 따라 시나리오에 제시된 범죄 발생 연도를 각각 다르게 설정하여 제시하였다. 실험에서 제시된 범죄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주택가 침입 절도범 40대 구속:

경찰은 XX일 남의 가정집에 침입, 현금 등 귀중품을 훔친 A씨(48)를 특가법상 절도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년 XX월 XX일 낮 12시 5분께 B씨(57)의 집에 침입, 현금과 금목걸이 등 50여만 원 상당의 귀중품을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이날 주택가를 배회하다 매마침 외출하는 B씨를 발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실험 절차

실험은 여섯 명씩 집단으로 실시되었다. 실험을 진행하기에 앞서 실험 참가자들에게 본 연구의 목적을 범죄에 관한 정보의 양이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두 가지 조건(가까운 과거 vs. 먼 과거)에 따라 참가자들을 무선 할당하였고, 각 조건에 맞게 범죄 시나리오와 응답지를 배부하였다. 참가자들이 제시된 시나리오를 읽고 나면 범죄 발생 연도에 대한 시간적 거리감을 평정하고 처벌 판단을 하도록 하였다. 시간적 거리감은 '매우 가깝게 느낀다(1)' - '매우 멀게 느낀다(7)'의 7점 척

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모든 평정이 끝난 뒤 간단한 인구통계학적 정보에 응답하게 하였다. 실험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으로 분석되었다. 각 실험 집단 간 양형판단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

두 가지 조건(가까운 과거 조건 vs. 먼 과거 조건)에 각각 할당된 참가자들에게 시간적 조작이 되었는지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두 실험 집단이 지각한 시간적 거리감을 종속변인으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조건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50) = 5.95, p < .001, d = 1.92$. 가까운 과거 조건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시간적 거리감은 평균 2.42($SD = 1.44$)이었던 것에 비해 먼 과거 조건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시간적 거리감은 평균 4.85($SD = 1.07$)이었다. 즉, 먼 과거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까운 과거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주어진 시나리오의 시간에 대해 더 멀다고 지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간적 거리와 처벌판단

시간적 거리에 따라 양형판단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알아보기 위해 'OO년 OO월'의 형식으로 받은 양형판단에 대한 응답을 'OO개월'로 변환하였다. 그 후 두 실험집단 간 판단에 대한 독립표본 t-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가까운 과거 조건의 양형 평균은 18.62($SD: 7.79$)개월, 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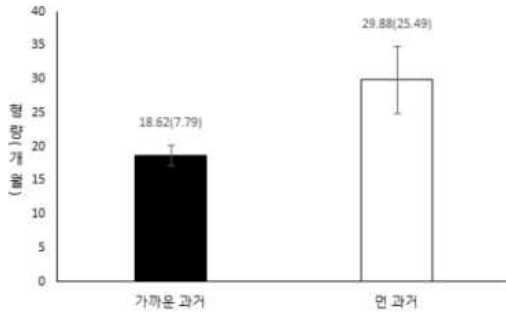


그림 1. 시간적 거리에 따른 처벌의 평균과 표준편차

과거 조건의 양형 평균은 29.88($SD = 25.49$)개월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50) = 2.16, p < .05, d = 0.59$. 즉, 10년 전 발생한 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이 당해 연도에 발생한 사건 시나리오를 읽은 참가자들보다 더 높은 양형을 부과하였다.

시간적 거리 조건에 따른 집단 간 비교 이외에 시간적 거리가 양형 판단에 미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각된 시간 거리와 양형 판단 간의 회귀분석 결과, 처벌정도인 양형판단에 대한 지각된 시간적 거리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다, $R(1, 50) = 3.73, p = .059, \beta = 2.70, R^2 = .07$. 이는 기존의 시간적 거리와 도덕적 판단에 관한 연구(Eyal et al., 2008; Gamliel et al., 2017)에서 사람들이 시간적 거리를 멀게 느낄 때 강한 도덕적 판단을 했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하며, 시간적 거리가 멀면 더 높은 수준에서 사건을 해석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보다 일반적이고 근본적 차원에서 사건을 판단하게 되어 행위자에게 더 강력한 처벌판단을 하게 된 것이라 하겠다.

연구 2

해석수준이론에 따르면, 시간적 거리감이 증

가하면 해석수준이 높아져 세부적인 구체적 수준보다 본질적인 추상적 수준의 해석을 한다(Eyal et al., 2008). 즉,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는 결과 혹은 어떻게(how)의 요인이 중요한 반면에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에는 원인 혹은 왜(why)라는 요인이 중요하게 고려된다(Gilead, Liberman, & Maril, 2013; Liberman & Trope, 1998). 이 같은 이론적 틀에서 보면 처벌의 정도를 결정하는 양형판단에 감경과 가중 사유²⁾는 범죄행위의 원인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적 거리에 따라 감경과 가중 사유의 고려가 달라질 수 있다. 즉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경우보다 시간적 거리가 먼 경우 감경과 가중요인이 처벌판단에 해당하는 양형판단에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다. 연구 2에서는 이 같은 처벌에 영향을 미치는 시간적 거리와 감경/가중요인의 효과를 검증하였다.

연구방법

연구대상

실험참가자는 수도권 소재 K대학교에서 심리학 교양을 수강하고 있는 대학생 중, 참여 의사를 밝힌 101명(남학생 37명, 여학생 64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에게 실험 참여 점수가 부여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양형인자(2: 감경요인 vs. 가중요인) X 시간적 거리(2: 가까운 과거 vs. 먼 과거)의 네 가지 조건에 참가자들을 무선으로 할당하였다. 실험참가자들의 평균 연령은 22.52세($SD = 1.88$ 세)이었다.

시간적 거리

시간적 거리는 연구 1과 동일하게 가까운 과

1) 그림의 오차막대는 표준 오차를 의미함.

2) 실제로 감경과 가중 사유에는 심신미약이나 피해자에 대한 보상과 같은 범죄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도 있음.

거 조건은 실험이 실시된 당해년도로 하였고 먼 과거 조건은 실험이 실시된 해보다 10년전으로 하였다.

양형인자

양형인자는 그 유형에 따라 크게 감경요인과 가중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시나리오에 제시된 각 요인은 대법원 양형위원회(2012)에서 정한 강도범죄 양형기준표를 참고하였다. 감경요인의 경우 '생계형 범죄', 가중요인의 경우 '비난 동기를 선정하였다. '생계형 범죄'란 궁핍한 가계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경우, 치료비, 학비 등을 마련하기 위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범죄에 이르게 된 것을 의미하고, '비난 동기'란 피해자에 대한 보복·원한·증오감에서 범행을 저지른 경우, 범행 자체를 즐겨서 저지른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 범죄에 이르게 된 경우를 의미한다. 감경요인 조건의 시나리오에서는 'A씨는 일감이 줄어 생활비가 떨어지고 암 투병 중인 노모와 큰 수술을 앞둔 가족의 병원비를 감당하지 못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제시하였다. 가중요인 조건의 범죄 시나리오에는 'A씨는 지난해 이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고 난동을 피우는 등 업무를 방해해 여 종업원의 신고로 벌금형을 받았고, 이에 대한 보복'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제시하였다.

처벌 판단

처벌 판단은 연구 1과 동일하게 범죄시나리오를 읽어 참여자가 내리는 양형의 정도로 하였다. 양형은 연구 1과 같이 '00년 00월'의 형식으로 판단하게 하였다. 양형의 범위는 특수강도의 기본 양형 구간(3년~6년)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 감경 또는 가중하여 양형 판단을 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범죄 사건 시나리오

연구 1에서 인용된 절도죄의 경우 공소시효가 7년인데 먼 과거 조건에서 범죄 발생 시기를 10년 전으로 한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하지 않아, 연구 2에서는 공소시효가 10년인 강도죄를 선정하였다. 범죄사건은 2008년 발생한 특수강도 사건을 재구성하였으며 제시된 범죄 사건 시나리오는 다음과 같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XX년 00월 00일 모 편의점내에 팬티스타킹으로 복면을 하고 들어가 여종업원(21)을 둔기로 위협한 뒤 화장실에 감금하고 금품을 털어 달아난 혐의로 체포되었다.

실험 절차

연구1과 동일하게 연구목적은 범죄에 대한 정보의 양에 따라 양형 판단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라고 소개하였다. 참가자들은 네 가지 조건에 무선으로 할당되었고 범죄 시나리오를 읽은 후 양형, 시간적 거리감(연구 1과 같음), 양형인자에 대한 평정을 하였다. 양형인자의 경우 자신에게 제시된 범죄의 원인이 감경요소 혹은 가중요소가 된다고 생각하는지 '감경 요소가 된다(-3)' - '가중 요소가 된다(3)'와 같이 7점 척도 상에 평정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 정보에 응답한 후 실험에 대한 사후 설명을 듣고 실험을 마쳤다. 실험은 약 20분 정도 소요되었다.

분석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2.0으로 분석되었다. 조작검증과 각 실험 집단 간 양형판단에 차이가 있는가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증과 이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결 과

조작점검

먼저 시간적 거리감 지각 정도에 있어서 조건 차이를 점검하였다. 이를 위해 두 실험집단이 평정한 시간적 거리감을 바탕으로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조건 간 평균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t(99) = -11.74$, $p < .001$, $d = 2.33$. 가까운 과거 조건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지각된 시간적 거리감은 평균 1.77($SD = 1.20$)이었던 것에 비해 먼 과거 조건의 참가자들이 느끼는 시간적 거리감은 평균 4.71($SD = 1.32$)이었다. 즉, 먼 과거 조건의 참가자들이 가까운 과거 조건의 참가자들보다 제시된 범죄사건 발생시기를 더 멀게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제시된 양형인자에 대한 두 가지 조건(감경요인조건 vs. 가중요인조건)에 할당된 참가자들간에 사건 발생 원인의 경중 지각에 있어서 차이가 있는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두 집단이 평정한 감경요인과 가중요인 지각 점수에 각 4점을 더하여 1점부터 7점 척도로 변환하고 독립표본 t -검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두 조건 간 평균은 감경요인 조건 3.04($SD = 0.86$), 가중요인 조건 5.98($SD = 1.25$)이었으며 그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t(99) = -13.83$, $p < .001$, $d = 2.74$. 즉, 감경요인 조건의 참가자들에 비해 가중요인의 참가자들이 제시된 사건 발생 원인이 더 가중요인이 된다고 판단하였다.

양형인자와 시간적 거리에 따른 처벌판단

범죄에 대한 처벌인 양형판단에 있어 양형인자와 시간적 거리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양형인자(감경조건 vs. 가중조건) \times 시간적 거리(가까운 과거 조건 vs. 먼 과거 조건)를 독립변수로 하는 이원 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양형인자의 주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97) = 27.13$, $p < .001$, $\eta_p^2 = 0.219$. 감경조건에서의 양형은 평균 41.63($SD = 18.00$)개월이었고, 가중 조건에서의 양형은 평균 65.37($SD = 27.94$)개월로 감경 조건에 비해 가중 조건에서 범인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렸다. 또한, 시간적 거리의 주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였다, $F(1,97) = 6.58$, $p = .012$, $\eta_p^2 = 0.064$. 가까운 과거 조건에서의 양형은 평균 47.12($SD = 18.40$)개월이었고, 먼 과거 조건에서의 양형은 평균 59.55($SD = 31.31$)개월로, 가까운 과거 조건에 비해 먼 과거 조건에서 범인에게 더 무거운 양형을 내렸다.

마지막으로 양형인자와 시간적 거리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유의미한 경향성이 나타났다, $F(1,97) = 3.10$, $p = .082$, $\eta_p^2 = 0.031$ (그림 2). 감경조건에서는 시간적 거리에 따른 양형의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지만($t(50) = -.719$, $p = .48$, $d = 0.20$), 가중조건에서는 시간적으로 멀수록 더 많은 양형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t(47) = -2.57$, $p = .014$, $d = 0.74$. 이 같은 결과는 시간적 거리의 효과 즉 가까운 과거보다 먼 과거의 사건의 경우, 본질적 수준의 추상적 사고를 하고 그 원인을 고려하는 효과가 가중요인과 상호작용하여 더 강력한 처벌판단을 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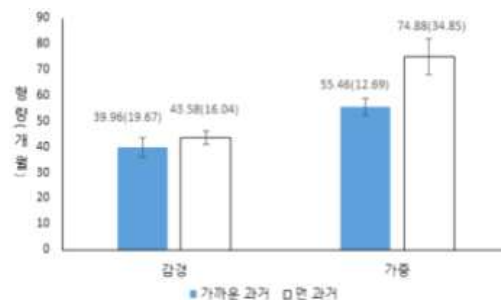


그림 2. 시간적 거리와 양형인자에 따른 양형의 평균과 표준편차

논 의

본 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와 양형인자에 대한 고려에 따라 처벌판단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먼저 연구 1에서는 시간적 거리에 따라 범죄 행위에 대한 양형판단에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시간적 거리에 따라 양형판단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간적 거리가 가까운 사건에 비해 시간적 거리가 먼 사건에 대해 더 무거운 양형을 부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는 과거의 시간적 거리와 도덕 판단에 관한 연구(Eyal et al., 2008; Gamliel et al., 2017)에서 사람들이 높은 수준으로 해석을 할 때 더욱더 확고한 도덕적 원칙에 기반하여 엄격한 판단을 하였던 것처럼, 가까운 범죄 사건에 비해 먼 범죄 사건에 대해 더 엄격한 도덕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가까운 사건에 비해 먼 사건에 대해 더 강력한 양형을 부과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시간적 거리의 효과 때문에 가까운 과거에 비해 먼 과거의 범죄 사실을 더 추상적으로 보게 되고 이로 인해 보다 일반적인 도덕적 기준에 의해 사건을 판단하게 된다는 기존의 연구(Eyal, et al., 2008; Liberman, et al., 2002) 결과와 일맥상통하였다.

연구 2에서는 범죄 원인에 해당하는 양형인자에 대한 고려를 또 다른 독립변수로 하여 시간적 거리와 양형판단과의 관계를 알아보았다. 그 결과 시간적 거리의 경우 연구 1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가까운 과거 조건에 비해 먼 과거 조건에서 범인에게 더 무거운 양형을 내렸다. 또한 양형인자를 감경요인과 가중요인으로 나누어 살펴보았을 때 사람들은 감경 조건에 비해 가중 조건에서 범인에게 더 강한 처벌을 내렸다. 또한 이들의 상호작용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경향을 보였다. 즉 가중 조건에서 시간적 거리가 먼 집단이 가해자에게 더 많은 양형을 부과 하였으나 감경조건에서는 시간적 거리에 따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는 감경이나 가중요인이라는 행

동의 원인이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보다 시간적으로 먼 경우에 더 고려의 대상이 된다는 기존 연구(Eyal et al., 2008; Nussbaum et al., 2003; Rim et al., 2013)의 결과에서 주장했던 것과 일치하는 것이다. 즉, 시간적 거리가 가까울 때보다 시간적 거리가 멀게 되면 사건에 대해 판단할 때 맥락적 요인을 덜 고려하고 범죄사건을 저지른 행위자의 기질적 요인을 더 고려하게 된다. 이에 더해 시간적 거리가 멀어지면 가까울 때보다 사건의 원인, 즉 왜(why) 이 같은 행동을 고려하기 때문에 범죄사건의 행위자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을 내리게 된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 효과는 가중요인에서만 나타나고 감경요인에서는 발생하지 않았다. 이 같은 차별적 효과가 발생하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은 2가지 측면에서 고려해볼 수 있다. 먼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양형인자 중 가중요인은 제시된 정보가 사건의 원인이지만, 기질적 요인에 해당한다(보복). 이에 반해 감경요인은 제시된 정보가 기질적 요인보다는 상황적 요인에 해당한 것이다(집안이 어려움). 두 정보가 범죄의 원인에 해당하는 것은 하지만, 귀인의 측면에서 보면, 기질과 상황이라는 서로 다른 요인이기 때문에 가중요인 조건에서는 양형인자의 영향이 명확하였지만, 감경요인 조건에서는 상황적 귀인과 범죄에 원인에 대해 고려하는 것이 서로 상쇄되는 결과를 낳았을 수 있다.

다음으로는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사례가 범죄라는 극단적 도덕적 사건이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즉 우리 사회의 규범 상 범죄의 가해자에 대한 처벌은 응보적 성격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라 할 수 있다(김범준, 2007; 김범준, 최승혁, 2008; Carlsmith, 2006). 응보적 입장에서 처벌을 내린다면 처벌인 양형은 통상적으로 엄격하고 강력할 필요가 있다. 이 경우 범죄 행위에 대한 가중요인은 처벌판단에 있어서 보다 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감경요인은 가중요인에 비해 좀 더 보수적 기준에서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감경요인에 비해

가중요인의 효과가 더 크다고 할 수 있겠다. 하지만 그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밝혀져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여러 연구를 통해 시간적 거리가 비윤리적 행동에 대한 평가에 미치는 영향력이 검증되었다(Eyal et al., 2008; Gino & Medin, 2012; Tenbrunsel, Diekmann, Wade-Benzoni, & Bazerman, 2010; Tumasjan & Strobel, 2010). 하지만 직접적으로 범죄사건에 대한 처벌판단에 시간적 거리가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조사한 연구는 없었다. 이 같은 측면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범죄행위에 대한 처벌판단을 해석수준이론의 관점에서 살펴본 국내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들을 안고 있다. 먼저, 심리적 거리와 도덕적 판단과의 관계에 대한 다른 관점 또한 존재한다. Gong과 Medin(2012)은 높은 해석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낮은 해석 수준에서 사람들이 도덕적으로 더욱 극단적인 판단을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높은 해석 수준에서 사람들은 비도덕적 행동에 대해서 분노를 덜 느꼈으며 도덕적 행동에 대해 덜 긍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주장과 달리 낮은 해석 수준에서는 인물이나 사건에 대한 개별의 고유한 특징(idiosyncratic characteristics)들에 집중하는데 이러한 특징이 부각됨에 따라 정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성향이 나타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Mentovich, Yudkin, Tyler, & Trope, 2016). 비슷한 맥락으로 Rizvi와 Bobocel(2016)의 연구에서는 범죄로부터 피해자의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높은 수준의 해석에 따라 범죄의 심각성에 대한 민감성이 줄어들어 용서를 촉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최근 들어 기존의 해석수준이론과 배치되는 연구결과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후속 연구를 통한 심리적 거리와 도덕적 판단에 관한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연구할 필요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거리 중 시간적 거리의 효과만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Trope & Liberman, 2010), 다른 심리적 거

리 즉 공간적 거리, 사회적 거리, 그리고 확률 발생 등은 서로 관련성이 있지만 각자의 특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범죄사건의 경우 다른 심리적 거리의 특성을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시간적 거리뿐만 아니라 다른 심리적 거리들과 관련된 연구들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절도와 강도 두 가지의 제한된 시나리오를 제시하고 양형을 판단하게 하였다. 이에 대해 추후 연구에서는 살인, 성범죄 등 다양한 범죄 사건에 적용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강력 범죄와 경범죄간의 비교, 범죄에 대한 심각성 지각과 같은 개인차 변수 등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인들을 복합적으로 다루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이 시간적 거리와 가중/감경요인이 처벌판단에 미치는 효과를 밝히고자 하는 실험 연구였기 때문에 범죄에 대한 처벌 판단에 해당하는 양형판단을 다루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방법이 재판상황과 상당한 괴리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실제 양형판단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한 다음 적절한 양형을 결정함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에는 단순히 양형만을 판단하도록 하였다. 즉, 실험의 외적 타당성이 비교적 높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후속연구에서는 실제 재판과정과 비슷하도록 그 절차를 구성해야 할 것이다. 즉, 추후 연구에서는 유무죄를 판단할 수 있도록 설정할 필요가 있음과 동시에 피해액수, 전과유무, 반성의 기미 등 다양한 정보를 포함하여 판단에 현실성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라는 점, 실제 재판과는 달리 단편적 정보만을 제공했다는 점, 실제 재판 상황과는 다른 절차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 결과의 해석이나 적용에 한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을 실시하는 비율과 이를 신청하는 비율은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이다(김재중, 2016). 그런데 이와 같은 국민참여

재판의 대상범죄가 확대되고, 실시 건수가 실질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실효성과 타당성에 대한 우려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면, 토론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배심원들의 소극적인 태도, 양형판단의 어려움(최수형, 2011), 한국인들의 온정주의에 따라 재판이 감성재판으로 흐를 우려 등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이재협, 우지숙, 이준웅, 2013). 이 같은 측면에서 본다면 국민참여재판제도가 보다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배심원의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연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에서 시간적 거리라는 심리적 변수가 처벌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힌 것은 국민참여재판에서 처벌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또 다른 요소를 제시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특히나 2015년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폐지된 형사소송법 개정안(일명 태완이 법) 시행 이후 미제라고 생각했던 사건들이 수면위로 떠오르고 있다. 실제 2011년에는 11년간 미제로 남아있던 이른바 '시신 없는 사건'의 피고인들이 11년 만에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이처럼 본 연구는 특히 오래된 사건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릴 때 시간적 거리에 따른 사람들의 판단이 달라진다면, 이를 사람들의 행동을 예측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미가 크다고 하겠다.

참고문헌

김범준 (2007). 강간범죄에 대한 위험도 인식과 가치판단에 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1(3), 57-73.

김범준, 최승혁 (2008). 처벌기준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효과: 남녀차이.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3(3), 343-361.

김재중 (2016). 국민참여재판의 현황과 향후 대

책. *법학연구*, 49, 191-222.

김혜정 (2017). 횡령·배임죄 처벌 및 양형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8(1), 79-103.

박미량, 이민식 (2011). 강간상해 범죄의 양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교정연구*, 9, 121-151.

박성훈, 최이문 (2016). 양형기준제도가 양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 27(3), 155-188.

박지선, 김정희 (2011).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경찰의 인식이 가해자 처벌 판단에 미치는 영향. *피해자학연구*, 19, 77-96.

양 윤, 김민혜 (2012). 해석수준, 메시지유형, 시간적 거리가 메시지 태도와 구매의도에 미치는 영향. *광고학연구*, 23(2), 151-172.

양형위원회 (2012). 양형기준. 양형위원회.

이재협, 우지숙, 이준웅 (2013). 배심제 평의의 합리성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2, 208-249.

이진용 (2010). 시간적 거리가 소비자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소비문화연구*, 13, 201-222.

정의준, 김혜영, 유승호 (2012). 소비자 태도와 행위에 대한 이론적 접근. *사회와이론*, 21, 377-410.

정지원, 이인숙, 김혜숙 (2015). 가해자 및 피해자의 성별과 판단자의 성별에 따른 양형판단. *한국심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464-464.

정혜승, 정은경, 손영우 (2011). 확률에 따른 심리적 거리감이 도덕적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5(4), 27-40.

조연진, 박경도, 서재범, 이호택 (2017). 소비자의 자아조절자원과 해석수준이 유통업체의 제품구색 평가에 미치는 영향. *경영컨설팅연구*, 17(1), 161-169.

최수형 (2011). 배심원의 범죄사실 및 양형판단에 대한 연구. *범죄와 비행*, 1, 227-250.

하민경 (2016). 양형요소로서 피고인의 직업 관련 불이익 고려의 정당성 판단. *비교형사법연구*, 18(4), 55-74.

- 황인정 (2007). 범죄 피해자와 범죄 판단자의 성별이 양형판단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여성*, 12(2), 107-121.
- Agerström, J., & Björklund, F. (2009). Moral concerns are greater for temporally distant events and are moderated by value strength. *Social Cognition*, 27, 261-282.
- Carlsmith, K. M. (2006). The roles of retribution and utility in determining punishment.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2, 437-451.
- Carrera, P., Caballero, A., Fernández, I., & Muñoz, D. (2017). Abstractness leads people to base their behavior intentions on desired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70, 27-33.
- perspective on employee concerns about unfair treatment at work.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6, 17-31.
- Dhar, R., & Kim, E. Y. (2007). Seeing the forest or the trees: Implications of construal level theory for consumer choice.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96-100.
- Eyal, T., Liberman, N., & Trope, Y. (2008). Judging near and distant virtue and vice.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4, 1204-1209.
- Eyal, T., Liberman, N., & Trope, Y. (2014). Thinking of why a transgression occurred may draw attention to extenuating circumstances. *Social Psychology*, 45, 329-331.
- Gamliel, E., Kreiner, H., & McElroy, T. (2017). The effect of construal level on unethical behavior. *The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157(2), 211-222.
- Gilead, M., Liberman, N., Maril, A. (2013). The language of future-thought: A fMRI study of embodiment and tense processing. *Neuroimage*, 65, 267-279.
- Gino, F., & Galinsky, A. D. (2012). Vicarious dishonesty: When psychological closeness creates distance from one's moral compass. *Organizational Behavior and Human Decision Processes*, 119(1), 15-26.
- Gong, H., & Medin, D. L. (2012). Construal levels and moral judgment: Some complications. *Judgment and Decision Making*, 7(5), 628-638.
- Hagan, J. (1974). Extra-legal attributes and criminal sentencing: An assessment of a sociological viewpoint. *Law and Society Review*, 8, 357-384.
- Haidt, J. (2001). The emotional dog and its rational tail: a social intuitionist approach to moral judgment. *Psychological Review*, 108(4), 814-834.
- Johnson, E. H. (1957). Selective factors in capital punishment. *Social Forces*, 36, 165-169.
- Lammers, J. (2012). Abstraction increase hypocrisy.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48, 475-480.
- Leventhal, G., & Kratochwill, R. (1977). Physical attractiveness and severity of sentencing. *Psychological Reports*, 40(1), 315-318.
- Liberman, N., Sagristano, M. D., & Trope, Y. (2002). The effect of temporal distance on level of mental construa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8, 523-534.
- Liberman, N., & Trope, Y. (1998). The role of feasibility and desirability considerations in near and distant future decisions: A test of temporal construal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5, 5-18.
- Liberman, N., Trope, Y. (2014). Traversing psychological distance. *Trends in Cognitive Science*, 18, 364-369.
- Liberman, N., Trope, Y., & Stephan, E. (2010). Psychological distance. In A. W. Kruglanski, & W. T. Higgins (Eds.), *Social psychology: Handbook of basic principles*. Vol. 2. (pp. 353-383). New York, NY: Guilford Press.
- Liberman, N., Trope, Y.,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 theory and consumer behavior.

-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2), 113-117.
- Mentovich, A., Yudkin, D., Tyler, T., & Trope, Y. (2016). Justice without borders: the influence of psychological distance and construal level on moral exclusion.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Bulletin*, 42, 1349-1363.
- Nussbaum, S., Trope, Y., & Liberman, N. (2003). Creeping dispositionism: The temporal dynamics of behavior predi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84, 485-497.
- Partington, D. (1965). The incidence of the death penalty for rape in Virginia. *Washington and Lee Law Review*, 22, 43-75.
- Rim, S., Hansen, J., & Trope, Y. (2013). What happens why? Psychological distance and focusing on causes versus consequences of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04, 457-472.
- Rizvi, S., & Bobocel, D. R. (2016). Promoting Forgiveness Through Psychological Distance. *Social Psychological and Personality Science*, 7, 875-883.
- Sellin, T. (1928). The Negro Criminal A Statistical Note. *The Annals of the American Academy of Political and Social Science*, 140, 52-64.
- Semin, G. R., & Fiedler, K. (1988). The cognitive functions of linguistic categories in describing persons: Social cognition and langua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4, 558-568.
- Semin, G. R., & Smith, E. R. (1999). Revisiting the past and back to the future: Memory systems and the linguistic representation of social event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6, 877-892.
- Stephan, E., Shidlovski, D., & Heller, D. (2017). Distant determination and near determinism: The role of temporal distance in prospective attribution to will.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68, 113-121.
- Tenbrunsel, A. E., Diekmann, K. A., Wade-Benzoni, K. A., & Bazerman, M. H. (2010). The ethical mirage: A temporal explanation as to why we are not as ethical as we think we are. *Research in Organizational Behavior*, 30, 153-173.
- Trope, Y., & Liberman, N. (2000). Temporal construal and time-dependent changes in pre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9, 876-889.
- Trope, Y., & Liberman, N. (2003). Temporal construal. *Psychological Review*, 110, 403-421.
- Trope, Y., & Liberman, N. (2010). Construal-level theory of psychological distance. *Psychological Review*, 117, 440-463.
- Trope, Y., Liberman, N., & Wakslak, C. (2007). Construal levels and psychological distance: Effects on representation, prediction, evaluation, and behavior. *Journal of Consumer Psychology*, 17, 83-95.
- Tumasjan, A., & Strobel, M. (2010). Ethical leadership evaluations after moral transgression: Social distance makes the difference. *Academy of Management Proceedings*, 1, 1-6.
- Wolfgang, M. E., Kelly, A., & Nolde, H. C. (1962). Comparison of the executed and the commuted among admissions to death row. *The Journal of Criminal Law, Criminology, and Police Science*, 53(3), 301-311.

1 차원고접수 : 2017. 07. 08.

수정원고접수 : 2018. 09. 21.

최종게재결정 : 2018. 11. 12.

Construal Level and Punishment: Focusing on Temporal Distance

KaYoung Lee

Dahee In

Beom Jun Kim

Department of Forensic Psychology, Kyonggi University

This study aims to investigate differences in sentencing depending on temporal distance. Participants (127 college students) were asked to read crime scenarios and respond to questionnaires. In Study 1,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of two different temporal distance (proximal/distal) conditions. They read the crime scenario and were asked to make a sentencing judgment. The results showed that the participants who were assigned to the distal condition generally gave a longer sentence than the participants in the proximal condition. Study 2 was conducted to find out the effect of temporal distance on sentencing when the sentencing factor was provided. The participants were randomly assigned to four different conditions by the temporal distance (distal/proximal) and the sentencing factor (mitigating/aggravating) and read a crime scenario to make a sentencing decision. The results turned out that there were the main effects of the sentencing factor and the temporal distance. Also,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he factors was significant. In the aggravating condition where the cause of crime was retaliation, the participants sentenced longer when the crime was distant than near. The limitations of the study and the suggestions for further research are discussed.

Key words : *Construal level theory, Psychological distance, Temporal distance, Sentencing Factor, Punishment*